

오또한그姓名을隱諱할진디挾雜에類가  
分明하니警察官吏드른저세이審査하는  
거시조케다고들하더라

◎(參酌度)度支部에서各郡守에게解  
由規則을식로磨鍊 다난디結戶錢과漁  
鹽稅를十三道各郡에分定하고各其陰曆  
으로月當을定하야次第來納하게되萬  
若自己에當稅納을進納지못하고遞官  
하며비록他官으로轉任하나解由에拘碍  
하야月銀을得受치무호줄노장차請議호  
다더라

◎(慮害他人)淸州北面太平里居하는李  
裕鳳이란사람이少年에外入하야家産을  
蕩敗하고今年三月에上京하야不過十餘  
日에其叔父季贊의게專人하야日日間에  
淸州中隊長이되니錢一萬二千兩을보너  
라고星火督促하는故로大小家産을盡賣  
하야上送하엿더니中隊長은消息도업고  
돈만浪費하엿시며七月에또參奉이되다  
하고錢八千兩을보너라고兵丁服色하사  
름一名과白衣一人을下送하야其叔父를  
威脅하나強木水生이라錢何從出이리오  
然호故로其叔父가本社에와말하디나의  
敗家는나의子姪잘못둔듯시어아와萬若  
他人에相關이되야害를當하면이느니의  
愛惜호일이니此事實을新聞에頒布하야  
달나고하기에디강괴지하노라

◎(妖僧愚婦)南門外동의전골사는朴召  
민가賣酒에得利하야家勢가稍饒하더니  
랍골女僧하나히朴召史에게數數往來하  
며誘引하야日生夜寐를을니며來生에極樂  
世界를逢하다하디서이愚昧호朴召史가  
妖言을信聽하고도四千餘金을虛費하야  
는디그隣里사름드말이朴召史는死後에  
질되리라호하더라

◎(必也無訟)漢城裁判所에廷史가겨우  
七八名이디遠處에이는被告는原告드려  
招來裁判하라는故로訟民들이稱宿하  
야日原告가被告를招致호權利가잇스면  
當初에엇지起무하엿스리오法律이이  
치開明하다가는다시訴訟하사람이無하  
리라호하더라

◎(不忘其惠)前主簿劉頤氏가昨秋에鳳  
山靈泉坊으로秋收를하러가더니本洞居  
하는鄭萬淳이란사람이凶年을當하야生  
活이無計호中에隣洞書齋契長利米를報  
給지못하야見督이日甚하게늘鄭氏가家  
産을發賣하야債主의게若干捰給하고去  
處가無하야道路에栖屑하거늘劉氏가그  
可矜호形狀을見하고三百金을出給하야  
七八人口가冬節에餓死之境을免케하엿  
더니鄭氏의게捧債人들이公議하고不少  
호債券을다蕩減하엿다니우리는劉氏의  
慈悲하는善心을致謝하노라

◎(庸工誤人)再昨日에南門外翰林洞朴  
順吉家を修理다가前寨瓦家一間이頽壓

하야該室에出接人鄭益善이가致死하엿  
다니聞하기에미우慘憺하더라

◎(初學入德)小安洞前閣柯祖氏에家를  
買하야德語學校를新設하고明日上午十  
一點鐘에開學하난禮式을行하난디學部  
官人들과德國領事와書記官이進參하다  
더라

◎(聖勅惶惑)再昨日下午七時에警務使  
가또口傳勅教를奉承하고中署總巡으로  
獨立協會事務所에來하야傳佈하야日  
夕協會에서 大內惶悚事로鐘路에會同  
호것도嘉尙헌일이어나와散去하라신  
勅教를聞하고곳散去하난것도또호嘉尙  
하니日後에 勅教奉行하기를이곳차  
하라하섯다더라

◎(慈民父母)곳慈城郡民이內部에呈호  
訴를見하니、이에金塚榮氏의上等에出  
호治로다、그엇지私에阿함이有하리오  
、이에實蹟을舉하엿도다、如此호郡守는  
、何處에서得來하엿는고、或失호가恐하  
도다、村에서吏을見치못하니革新호其  
治호、民이다化를賴하엿스니比前하야  
愈安하도다、於是에、一郡民等이萬人의  
面을繡하야、八疊의屏을裁하엿도다、호  
가지輿誠을齎하야、공손히我侯에獻하  
니、侯一마라스디、此物이胡爲乎至하얏  
는고이것시新式의不當함이오、我政이  
設有可稱이라도居官의宜行이라、반다